



**KOREAN A1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A1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A1 – NIVEL MEDIO – PRUEBA 1**

Monday 22 May 2006 (morning)  
Lundi 22 mai 2006 (matin)  
Lunes 22 de mayo de 2006 (mañana)

1 hour 30 minutes / 1 heure 30 minutes / 1 hora 30 minutos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It is not compulsory for you to respond directly to the guiding questions provided. However, you may use them if you wish.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Le commentaire ne doit pas nécessairement répondre aux questions d'orientation fournies. Vous pouvez toutefois les utiliser si vous le désirez.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 No es obligatorio responder directamente a las preguntas que se ofrecen a modo de guía. Sin embargo, puede usarlas si lo desea.

다음 중 하나를 골라 해설하시오.

1(a) 눈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5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놓고 마음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10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15 마음껏 뱉자.

(김수영 [문학예술])

시에서 가장 중요한 형식적 특징은 무엇이며 그것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 시에서 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시의 어조적 특징은 무엇인가?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인가?

**1(b) 먼 곳에의 그리움**

그것이 헛된 일임을 안다.

그러나 동경과 기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무너져 버린 뒤에도 그리움은 슬픈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나는 새해가 올 때마다 기도 드린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어떤 엄청난 5 일, 매혹하는 일,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나는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모험 끝에는 허망이, 여행 끝에는 피곤만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잘 안다.

그리움과 먼 곳으로 훌훌 떠나 버리고 싶은 갈망, 바하만의 시구처럼 '식탁을 털고 나무끼는 머리를 하고' 아무 곳이나 떠나고 싶은 것이다. **먼 곳에의 그리움!** 모르는 얼굴과 마음과 언어 10 사이에서 혼자이고 싶은 마음! 텅빈 위(胃)와 향수를 안고 돌로 포장된 음습한 길을 거닐고 싶은 욕망. 아무튼 낯익은 곳이 아닌 다른 곳, 모르는 곳에 존재하고 싶은 욕구가 항상 나에게서 있다.

포장마차를 타고 일생을 전전하고 사는 집시의 생활이 나에게서 가끔 이상적인 곳으로 생각된다. 노래와 모닥불가의 춤과 사랑과 점치는 일로 보내는 짧은 생활, 짧은 생. 내 혈관 속에서 어찌면 집시의 피가 한 방울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고 혼자 공상해 보고 웃기도 한다.

내 영혼에 언제나 고여 있는 이 그리움의 샘을 올리는 몇 개월 아니, 몇 주일 동안만이라도 15 채우고 싶다. 너무나 막연한 설계- 아니 오히려 '반설계'라는 편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모든 플랜은 그것이 미래의 불확실한 신비의 속해 있을 때만 찬란한 것이 아닐까? 동경의 지속 속에서 나는 내 생명의 연소를 보고 그 불길이 타고르는 순간만으로 메워진 삶을 내년에도 설계하려는 것이다.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특권이야말로 언제나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아마 유일한 선물이 20 아닌가 하는 생각해 본다.

(전혜린, '먼 곳에의 그리움' 한국 고등학교 교과서)

이 수필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 수필의 구조적 특징은 무엇인가?

이 수필에 나타난 작가의 사상적 특징은 무엇인가?

이 수필에서 가장 중요한 형식적 특징은 무엇인가?